

#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 합의

(6·25 전쟁 전사자)

## 공동성명 어떤 내용 담았나

“김정은, 비핵화 약속 재확인  
트럼프, 北안전보장 제공 공약  
새로운 북미관계 건설 노력”

북미 양국이 12일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2항에서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어 3항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완전

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직전 “우리는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라며 운을 폈다.

김 위원장도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자리 위해 노력해주시는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들이 발언하는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테이블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문 서류철을 펴졌다. 동시에 김여

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오빠인 김 위원장에게 서명용 필기구를 건넸다.

곧바로 서명이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금세 서명을 끝냈지만 서명이 다소 복잡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서로의 합의문을 건네받아 다시 자신의 서명을 넣었다. 2부의 합의문에 각각 서명해 나눠 갖는 것이다. 오후 1시 43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의문을 돌려주며 악수를 했다. 전세계가 숨죽이며 기다려온 북미 정상회담의 교착상태가 풀렸다.

최종에는 큰 박수가 터졌다. 양 정상이 입장하기 전에 북미의 핵심 수행단이 미리 들어와 서명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미협상의 핵심 주역들이 힘껏 박수를 치며 합의 도출을 축하했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 북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 오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햄버거 대신 소갈비... 싱가포르 음식 올라

오이선 등 韓 궁중음식 포함 눈길  
디저트는 타르트·아이스크림 등

북미 정상이 12일 함께한 업무 오찬 테이블에 햄버거는 없었다. 그 대신 미국과 북한, 싱가포르 현지 음식이 올랐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업무 오찬에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곁들인 전통적인 새우각제일, 오이선, 허니 라임 드레싱과 신선한 문어를 올린 그린 망고 케라부가 전식으로 나왔다.

오이선은 오이에 칼집을 넣고 소고기와 달걀, 당근 등을 채운 한국의 궁중음식이고, 케라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많이 먹는 아채 샐러드의 일종이다.

3가지나 되는 전식 메뉴로 정상회담의 당사국인 북미와 개최국인 싱가포르의 음식을 배합한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전체에 이은 주요리의 구성도 비슷했다.

먼저 소갈비조림 요리가 오븐에 구운 감자 도피누아와 데친 브로콜리와 함께 나왔다. 바삭바삭한 돼지고기를 넣고 휴메이드 XO 칠리소스를 곁들인 양저우식 볶음밥과 대구조림도 주요리로 나왔다.

서양식 요리에 싱가포르에서 많이 먹는 중국식 요리, 그리고 한식 메뉴가 조화

된 구성이다.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북미간 화해와 교류’라는 정치·외교적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저트로는 다크 초콜릿 타르트와 체리 맛이 가미된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파이의 일종인 트로페지엔이 나왔다.

이번 정상회담의 오찬 테이블에 햄버거가 올라갈지가 여러 관련 포인트 중 하나였지만 햄버거는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6월 유세를 하면서 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햄버거라는 메뉴 자체가 격식 없이 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패스트푸드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날 업무 오찬에는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 대사, 매슈 포틴저 NSC 부보좌관 등 7명이 참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미국보다 1명 많은 8명이 자리했다. 김정은 위원장 주변으로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광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전당 재정경리부장)이 앉았다. /김승호 기자

## 세기의 담판 이끈 ‘北美 조연’은?

김영철·리수용·리용호 vs  
폼페이오·존 켈리·존 볼턴  
북미 핵심 외교라인 총출동  
회담 형식·의전 등 실질적 관리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보좌한 양국의 ‘조연’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비핵화, 체제보장 등 양국간 첨예한 문제부터 회담 형식, 의전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제들을 놓고 북한과 미국,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이날 회담 자리를 만든 실질적인 주역들이다.

확대정상회담에선 미국 측의 경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앉았다.

김 위원장 옆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함께 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마주본 채 두 정상을 보좌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두 차례나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며 담판 성사를 이끈 인물이다. 대북 초강경파에서 ‘친(親)김정은’으로 급변시킨 인물인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주에 걸쳐 일주일에 8~10시간씩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복심’으로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한반도 정세 변화를 물밑에서 주도하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삼각체널을 구축한 인물이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가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자리에도 모두 배석했다.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은 ‘선(先) 핵해기 후 보상’이라는 강경한 ‘비



비아 모델’을 밀어붙여 정상회담을 좌초 시키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은 인사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에 극적으로 올라탄 데 이어 이날 확대정상회담 대좌에도 참석했다. 미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불화설이 돌던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백악관 2인자인 켈리 비서실장의 배석은 군 장성 출신인 그의 능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축’의 한 멤버로 불려온 그가 총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자제시키면서 예측불허의 북미정상회담을 큰 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북한 외교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다년간 스위스 대사로 활동해 선진국의 외교와 국제 사회의 외교 전략에 밝고, 외교 인맥도 폭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호 외무상은 머릿속에 대미 협상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리 외무상은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 뿐 아니라 군축, 인권,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각종 협상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으며 6자회담 경험도 풍부하다.

확대회담 뒤에 이어진 업무오찬에선 북한의 경우 김여정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한광상 당 중앙위 부장이 추가로 자리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 오빠 곁에서 정치·외교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오른팔’이자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초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며 ‘한반도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선희 부장 역시 ‘미국통’으로 꼽힌다. 최 부장은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대미 외교의 ‘한 우물’을 파온 인물로, 핵 문제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군축,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대미 전략과 협상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성 김 필리핀 대사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릴레이 협상’을 벌이며 의제 조율을 맡아왔다. /김승호 기자 bada@